

#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조성 박차

새만금개발청·전북도·농어촌공사 등 다양한 관계기관과 협력사업으로 추진  
풀무원 등 12개 수산기업 입주... 내년까지 약 1734억 투자·약 400명 고용효과

새해부터 군산시가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조성사업은 연간 2천억 원에 이르는 물김 등 다양한 지역수산물에 다른 지역으로 유통가공되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농어촌공사 등 다양한 관계기관의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군산시는 지난해 10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만금 2공구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이하 수산식품단지) 12개 입주기업과 1,700억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사업 진행에 탄력을 얻었다.  
협약식에는 입주기업 12개 기업대표를 포함해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안재호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등 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할 만큼 높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단지 민간기업

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하루 약 3만 톤 규모의 해수(海水) 공급이 가능한 핵심 기반 시설인 해수(海水) 인배수 시설과 내부 도로 개설을 추진중이다.  
기반시설 조성에 속도전을 내는 가운데, 입주기업 중 하나인 풀무원은 단지 내에 세계 최초 육상 지능형 농장 형태의 물김생산 및 마른김 가공공장 등 설립을 추진하는 중이다.  
실제로 풀무원은 2021년 육상 양식 기술 개발을 시작해 이듬해 전라북도 등과 김 양식 공동연구를 진행, 큰 수조 안에서 김을 재배하고 수확해 일부 상품화 하는데 성공했다.  
군산시 박동래 수산식품정책과장은 "새만금으로 위촉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한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조성사업이 입주기업 투자를 통해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라며 "입주 업체에 최선의 행정적인 지원을 해 토종 우량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 강임준 군산시장, 새해 첫 시민과의 대화 개최

13일 간 27개 읍면동 순회...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해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

강임준 군산시장의 새해 첫 '2025년 주민과 함께 하는 읍면동 신년 대화'가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7일 수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직원격려와 주민들과의 인사, 부서장별 지역 현안 설명, 신년 메시지 전달 등의 순서로 진행된 신년대화는 강임준 시장의 새해답담으로 시작됐다.  
강 시장은 "지혜로 변화를 이끄는 푸른 뱀의 해가 시작됐다."라면서 "최근의 비상시국과 사회적 혼란속에서도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차고 밝은 <우리의 군산>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새해 덕담 이후 주민 대표들의 민원과 숙원사업에 대한 질문과 관련부서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먼저 지곡동 주민편의시설 조성에 대한 문의에서 교통행정과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장기적 검토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시립도서관 관리과와 산림녹지과는 현재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차후 이



와 관련한 답변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월명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설치 요청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가 나서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는 옐로우 신호등과 신호대기 중인 어린이들을 위한 옐로우 컷오프 설치되었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수송동의 현안 사업인 완충녹지 생활환경숲 조성과 수송공원 맨발

길 정비 및 야간특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강임준 시장은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감사하다. 오늘 여러분의 의견은 심도있게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신년대회는 7일 수송동을 시작으로 13일간 이어지며, 강임준 시장은 이 기간동안 지역 내 27개 읍면동을 순회할 방침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 장애인 개인예산제, 내년부터 본격 운영

익산시,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선정

익산시가 장애인의 자율성과 선택권 보장에 중점을 둔 복지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익산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선정돼 국비 8,600만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등의 바우처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시작했다.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공급자 중심

의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당사자가 주어진 비용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자원을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장애인 바우처 이용 장애인 중 25명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별 바우처 지급액의 20%를 일상·사회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의회, 제270회 원포인트 임시회 마무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 의결처리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제270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상정된 2건의 안건들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7일 양일간 비상시국 내수 침체 상황에 소비위축 및 매출 감소로 침체위하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개최했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2025년 본예산 대비 228억 4971만 3천원(△1.38%)이 증액된 1조 677억 2311만 8천원으로 확정됐다.  
김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갑작스러운 비상시국과 고물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내수 침체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촉진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다고 말했다.  
김우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안을 외면할 수 없기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긴급히 소집하였다고, 이번 임시회가 신속하게 개최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시는 동료의 원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불어넣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초석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군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우선에 두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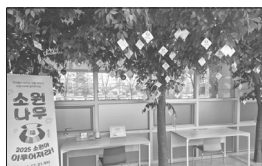
## 익산 단체·기업, 녹색정원도시 만들기 '동참'

익산산림조합·티와이엠, 나무심기 성공 기부

'익산산림조합'과 '쥬티와이엠'이 녹색정원도시 조성에 동참하고자 7일 시청을 방문해 성금을 기부했다.  
이날 익산산림조합과 (주)티와이엠은 각각 5,000만 원과 1,30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사)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에 기탁된 후 나무심기에 활용될 예정이다.  
익산산림조합은 2021년부터 나눔공간을 비롯한 이웃돕기 성금 기탁, 코로나19·수해복구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티와이엠은 농기계를 제작·판매하는 회사로 왕궁면에 위치한 익산공장은 약 400명이 근무하고 있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수성 익산산림조합 조합장은 "푸른익산가꾸기 사업에 보탬이 되고자 성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전했고, 이주영 (주)티와이엠 익산공장장은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 익산시민과 상생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푸른익산만들기를 위한 나무심기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하다"며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녹색정원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 영등도서관, 새해 맞이 '소원나무 행사' 진행

익산 영등도서관은 새해를 맞아 1층 어린이실에 소원나무를 설치하고 새해 소원을 나누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도서관 이용자들은 오는 31일까지 올해 소망들을 엽서에 작성해 소원나무에 걸며 각자의 동기를 부여한다. 또 이용자와 소통하며 서로의 소원을 응원한다. 소원나무 행사는 지난해 3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한 도서관 이용자는 "지나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적은 소원들을 다 이룬 것 같아 뿌듯하다"며 "올해도 소원을 적어 보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반갑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치매안심센터 기억의 봄' 참여자 모집

익산시가 치매 예방·관리 환경 조성을 위해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익산시 치매안심센터는 경도인 지장애와 치매진단자를 대상으로 '기억의 봄'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기억의 봄'은 모현동 익산시치매안심센터와 합의를 북부권 치매분소에서 다음달 10일부터 주 1~2회 연중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잔존 기능 유지와 인지 저하 지연에 초점을 맞춰 △인지 영역별 훈련 △수공예 △실버 체조 등 다양한 활동이 운영된다.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돼 있으며,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도인지장애 환자와 경증 치매환자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치매안심센터(063-859-7454, 7460, 4125, 412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치매안심센터는 조기검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등 다양한 치매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국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